

# 행복한 크리스마스의 비밀

최주인

“대체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니? 생각해 봐. 누가 검은 피부의 산타를 좋아하겠어?”

매년 같은 질문을 하지만 매번 같은 대답뿐이다.

“이제는 우리도 달라져야 합니다.”

“안 돼. 언제나 산타는 하얀 피부에 황금 수염이어야 해.”

가슴이 답답했다. 그동안 세상은 너무나 많이 달라졌다. 순록 없이도 하늘을 날 수 있고 검은 피부의 대통령도 생겼다. 마법 지팡이 없이도 지구 반대편 사람과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도 여전히 산타는 하얀 피부와 황금 수염을 해야 한다. 수천 년 전에도, 지금도 그래야 한다.

“모든 게 변해도 산타는 변해서는 안 돼. 산타는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지켜 줘야 하니까.”

산타장님은 더 이상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셨다. 본인이 하고 싶은 말씀만 쏟아 내듯 뱉어 내고 교실 밖으로 나가 버리셨다.

“그냥 하던 대로 해. 괜히 분란 일으키지 말고.”

교실 안, 친구들 대부분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기운 내. 언젠간 달라지겠지.”

격려를 보내는 친구도 있었지만 소수에 지나지 않았다.

“제임스, 이제 포기하는 게 어때?”

렉스였다. 지금껏 나를 응원해 준 유일한 친구이다.

“그럴 수 없어. 여기서 포기하면 나는 평생 가면 속에서 살아야 해.”

“네 말이 맞아. 하지만 혼자서 세상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걸 너도 알고 있잖아.”

위로하듯 렉스가 말했다. 잘 알고 있었다. 나라고 그동안 아무 시도도 해보지 않은 게 아니었다. 선물을 주는 척, 자는 아이를 깨워 간신히 정체를 밝히면 어김없이 산타장님이 나타나 마법으로 아이의 기억을 지워 버렸다.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었다.

“제임스는 산타로서 지켜야 할 신분 비밀 유지법을 위반하였습니다. 이에 자격 정지 1년에 처합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루돌프 똥을 치우며 1년을 보내야 했다.

“그동안 할 만큼 해 봤잖아. 더 이상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 세상 사람 모두가 우리의 비밀을 알기 전에는 말이야.”

렉스가 내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바로 그때, 번쩍하고 생각 하나가 떠올랐다.

“고마워.”

어리둥절해하는 렉스에게 감사의 인사를 던졌다. 그리고는 황당한 표정의 렉스를 뒤로하고 서둘러 교실을 뛰쳐나왔다. 혹시 떠오른

생각이 사라질까 하는 노파심 때문이었다.

“띵동.”

드디어 며칠 전 신청한 스트리밍 승인 결과 문자가 왔다. 떨리는 가슴으로 핸드폰의 문자를 확인했다.

제임스님께서 신청하신 라이브 스트림 방송이 승인되었습니다.  
이제 라이브 스튜디오를 접속해 콘텐츠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방송 신청이 승인됐다. 걱정과 설렘이 뒤섞인 몽글몽글한 감정이 들었다. 크게 한숨을 내쉬며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켰다. 그리고는 방송을 위한 썸네일을 정성스럽게 입력했다.

#산타 할아버지#긴급 라이브#비밀 공개#양심 고백

“안녕하세요. 저는 제임스라고 합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방송을 시작했다. 실시간 채팅 창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입장해 있었다.

<루돌프 사등> 썸네일 대박. 혹시 낚시 아님?

<가나다라마법사> 완전 궁금. 빨리 고백해 주셈.

라이브 창에는 채팅이 소나기처럼 쏟아져 내렸다.

“오늘 밝히려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내용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이썬신장군> 거두절미. 요점만 간단히.

<연쇄할인범> 짧게 말하삼. 저 딱 십 분만 봅니다.

본론만 간단히 말하라는 내용의 채팅이 쏟아졌다.

“믿기 힘들시겠지만 저는 산타입니다. 그동안 저는…….”

최대한 간략하게 준비한 말을 꺼내어 놓았다. 그리고 준비한 외모 변환기를 꺼내 작동 버튼을 눌렀다. 그러자 하얀 피부의 황금색 수염을 한 할아버지가 나를 대신해 영상 창을 채우고 있었다.

“지금껏 저는 이 기계로 모습을 바꿔 활동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산타는 하얀 피부에 황금색 수염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동안 의도치 않게 여러분을 속여 온 점 정말 죄송합니다.”

나의 고백이 끝나자 댓글 창은 실시간 반응으로 넘쳐흘렀다. 하지만 대부분이 내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반응이었다.

<가나다라마법사> 헐, 뉘였음. 난 또 무슨 큰 비밀이라고. 괜히 내 시간만 날렸음.

<뱃살공주> 피부색하고 산타하고 무슨 상관이라고 비밀로 한 거임?

내 비밀은 별로 특별할 게 아닌 일이었다. 간혹 놀랍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그게 무슨 문제냐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그렇게 뜻뜻미지근한 반응과 함께 아이들은 라이브 방송을 빠져나갔고 방송은 끝이 났다. 하지만 방송 후, 세상은 달랐다. 모든 나라에서 편집된 라이브 영상을 메인 뉴스로 내보냈다. 언론은 맛있는 사냥감을 잡았다는 듯 달아올랐다. 온종일 내 고백을 둘러싸고 뜨거운 논란을 벌였다. 뜨거운 논란은 곧바로 논쟁의 불길이 되어 산타 마을로 옮겨붙었다.

“산타의 명예를 추락시킨 제임스를 처벌해야 한다.”

마을 사람들은 학교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세상의 답을 듣고자 용기 낸 당신과 함께하겠습니다.”

나의 행동을 응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시위와 응원은 커져만 갔고 서로 다른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했다.

“산타법 1조 2항 산타 비밀 유지에 대한 규칙, 2조 3항 동심 유지에 대한 규칙 등을 위반한 혐의로 제임스를 긴급 체포합니다.”

결국 사건의 추이를 지켜보던 법원까지 나서게 되었다. 재판의 결과 또한 팽팽했다. 유죄를 선고한 1차와는 달리 2차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결국 최종 판결을 가리기 위한 마지막 공판이 열렸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번 사건으로 인해 아이들은 상상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임스는 산타로서 반드시 지켜 줘야 할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깨뜨렸습니다. 이에 본 검사는 제임스의 산타직 박탈과 마을 추방을 요구합니다.”

검사 측 최종 구형이 떨어졌다.

“이제 피고인, 최후 변론 하세요.”

재판소 안의 모든 시선이 나에게 쏠렸다.

“산타는 걸모습이 아닌 존재 자체로 꿈과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산타야말로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속 말을 담담히 꺼내 놓았다. 더는 할 말도, 미련도 남지 않았다.

“그럼 사건 번호 2021번 최종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합의를 마친 재판장은 판결문을 서서히 낭독했다.

“아무리 좋은 의도일지라도 제임스는 산타로서 지켜야 할 법을 저버렸다. 그 잘못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본 법정은 제임스

의 산타직 박탈과 마을에서의 추방을 명령한다.”

산타직 박탈도 모자라 마을 추방이라니. 믿을 수 없었다. 마을에서 추방된 사람은 마을의 비밀을 위해 기억까지 조작돼 쫓겨나기 때문이다. 행복했던 추억까지 삭제된다니.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이것으로 사건 번호 2021번 피고인 제임스 사건을 종료합니다.”

“땅! 땅!”

재판장은 법봉을 내리치며 재판을 종료를 알렸다.

“잠깐만요.”

마지막 부딪침이 일어나기 전 누군가 재판장의 법봉을 막아 세웠다. 내 또래로 보이는 자그마한 여자아이였다.

“이의 있습니다.”

아이는 재판장을 바라보며 소리쳤다.

“재판은 이미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재판소에는 허가된 사람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다시 선고합니다. 피고인 제임스를 지금 즉시 마을에서 추…….”

다른 누군가 한 번 더 재판장을 막아 세웠다. 여자아이와 함께 재판소 안으로 들어온 렉스였다.

“재판장님, 판결 전에 피해자로 지목된 아이들의 생각을 직접 들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렉스는 공손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재판장에게 말했다. 렉스의 말에 여자아이는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치 못한 등장에 재판소

의 분위기는 순간 어수선했다.

“이미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재판을 재개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상해진 분위기를 감지한 검사는 손을 휘저으며 말했다.

“산타법 1조 1항, 아이들의 동심은 어느 법보다 우선한다. 이번 사건은 아이들의 동심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만으로 재판을 재개할 근거는 충분합니다.”

렉스는 말에 재판장은 곤혹스러워했다. 한참을 고민하던 재판장은 배석 판사들을 불러 모았고 결국 여자아이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증인은 어떻게 재판에 참여하게 되었나요?”

증인 선서를 마친 여자아이에게 검사는 날카로운 목소리에 물었다.

“저는 압둘라 하세미입니다. 저는 지금껏 나를 감추고, 꿈을 덮고 살았습니다. 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도, 엄마도, 언니도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요.”

여자아이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 또한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전 여자니까 당연하잖아요. 그러다 한 아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자신을 산타라고 했어요. 누가 믿겠어요. 검은 피부의 아이가 산타라니. 그런데 그 아이는 자신이 산타임을 증명했습니다. 정말이지 믿기 힘들었어요.”

여자아이는 아직도 놀랍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더 놀라운 건 다른 아이들의 반응이었어요.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는데 그게 뭐가 특별한 일이냐고 했어요. 검은 피부 아이 산타

를 두고 말이에요. 저는 지금껏 꿈을 가져 본 적이 없어요. 당연하  
잖아요. 여자는 이 작은 천 안에 숨어 생각과 꿈은 지워야 하니까  
요.”

여자아이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는 얼굴을 감싸던 천을 풀었  
다. 가려져 있던 아름다운 머리카락은 찰랑거리며 햇살에 빛났다.

“저는 당연했던 생각을 버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히잡을 벗어던진 여자아이는 더 이상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재  
판소에는 설명하기 묘한 분위기만 감지되었다.

“선고하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1번…….”

얼마의 시간이 흐르고 정적을 깨듯 최종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렇  
게 나의 재판은 끝이 났다.

“제임스, 어떻게 지냈어?”

오랜만에 듣는 반가운 목소리였다. 고개를 돌려 보니 하세미가 나  
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하세미, 이번 여행은 어땠어?”

“너무 좋았어. 루돌프가 가끔 졸음운전을 한다는 것만 빼면 말이  
야. 아이들에게 꿈을 선물하는 일은 정말 행복한 일인 것 같아.”

하세미는 크리스마スイ브 날 있었던 일을 재잘재잘 이야기했다.  
행복해하는 하세미의 모습에 예전 추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제임스, 너는 이번 크리스마스 어땠어?”

“흠... 다음 크리스마스부터 다시 아이들과 만날 수 있다 생각하니  
루돌프를 돌보는 일이 생각보단 나쁘지는 않더라고. 고마워. 내 꿈  
을 이어 갈 수 있게 도와줘서.”



하세미에게 이제껏 건네지 못했던 감사의 말을 건넸다.

“내가 더 고맙지. 너야말로 나에게 나로 살 수 있게 용기 줬으니까.”

“그런가?”

“하하하.”

“하하하.”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동시에 웃음을 터트렸다. 더 이상 서로에게 별다른 말은 필요하지 않았다. 그 어느 날보다 행복했던 크리스마스였다는 걸 서로 느낄 수 있었으니까.